

로마가 비전을 수립한다 - 세 번째

미국과 예언적 비전: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이해에 대한 부르심

Jeff Pippenger

2024-07-14

다니엘 11장 14절에서 '이상을 세우는' '네 백성의 강도들'로 미국이 예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적 해석을 다룬 이전의 두 기사에서 우리는 엘렌 화잇이 "교회의 각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시험되고 증명될 것이다"라고 기록한 구절을 인용했다.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은과 금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된 그 시험과 증명과 체질의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말라기 3장은 정화의 일을 밝힌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롭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3, 4.

미국이 환상을 성취하는 상징이라는 생각을 고수하는 이들은 2023년 7월에 봉인이 풀린 그 메시지가 십사만 사천에 들 후보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십사만 사천의 최종 정결이 예표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였노라.' 그분은 그들이, 그분께 끌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임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14. 영혼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은 성령을 통해 영혼 안에 믿음이 타오르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의 불신앙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자, 이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더욱 멀어졌다. 그들은 크게 불쾌해하며, 구주께 상처를 주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기쁘게 하려고 그분께 등을 돌리고 멸시하며 떠났다. 그들은 이미 선택을 하여, 영은 없이 형식만을, 알맹이 없는 껍질만을 취했다. 그들의 결정은 그 뒤로 결코 번복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키가 있고, 그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시며, 자기 밀을 곳간에 모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케 하는 때 중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쪽정이가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영적이고 자기기에 빠져 있으며, 겸손한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도 영혼들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을 받는다.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와 닿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신 안에 전적인 변화의 필요를 보지만, 자기부인의 일을 감당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분노한다. 그들은 실족하여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떠나며 중얼거리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 시대의 소망, 392.

십사만 사천의 마지막 성전 정결을 다룬 말라기의 비유 속 금과 은은 "진리의 말씀"으로 상징되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오시는 날을 누가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 같고 세탁하는 자의 잣물 같으니라. 말라기 3:1, 2.

말라기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인용한 글들 가운데 첫째인 "The 1888 Materials" 403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대한 자신의 현재의 불완전한 지식을 구원에 충분하다고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치명적인 기만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오류를 분별하고 진리로 둔갑한 모든 전통과 미신을 단죄할 수 있도록 성경적 논거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같은 대목에서 지적된 이들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며,"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에 관하여 또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 영혼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취하려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의로운 해의 광선을 보고자 한다면,"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첫 번째 글은 그들의 그릇된 예언 모델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The Great Controversy의 한 구절임을 지적했는데, 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구세계의 로마주의와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는 모든 신성한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향하여 유사한 노선을 따를 것이다." The Great Controversy, 615. 그들의 사적인 해석은 이 문장이 "로마주의"를 과거의 역사로, "배도한 개신교"를 현대 세계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장에 대한 그들의 적용이 올바른 의미에서 왜곡되었다는 문법적 증거가 제시된 후에도, 그들은 그 잘못된 적용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바로 그 구절을 다음 줌 미팅을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신성한 진리를 부지런히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거짓 주장을 철회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는데, 이는 이 잘못된 적용을 홍보하는 자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해 "부지런히 탐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인다.

이 논쟁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것을 '네 백성의 강탈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관한 진리와 오류 사이의 단순한 의견 대립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접근해 왔고, 나는 여전히 그 입장을 견지한다. 다니엘서에 관한 연재는 제200호 무렵,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의 의의가 탄탄하게 제시된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 구절들은 1989년부터 다니엘 11장 40절에 언급된 곧 다가올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우리는 그 역사를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로 확인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화이트 자매가 "봉해졌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이다"라고 말할 때, 다니엘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가 바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임을 확인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말세에 봉인이 풀리는 예언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세 절은 은혜의 기한이 끝나기 직전에 개봉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일곱 우레"로도 표현됩니다. 화이트 자매가 그 "다니엘서의 그 부분"을 언급할 때, 그 진술이 있는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의 뜻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 이 책을 연구하는 일이 헛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말라. 이 신비들을 요한에게 계시하신 분께서 진리를 부지런히 찾는 이에게 하늘의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이 열린 이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 종결을 이룬다. 여기서 다니엘서는 보완된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령하였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4, 585.

"complement"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리는,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일곱 우레"를 "줄에 줄을 더하여" 결합할 때 완전해진다. 이 세 가지 표상은 봉인이 풀린 메시지이며, 그러므로 말라기서의 최종 성전 정결에서 십사만 사천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나타낸다. 이는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절은 현재의 논쟁이 나타나 있는 절이며, 따라서 그것은 밀러파가 그들의 예언적 역사에서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논쟁을 나타낸다.

14절의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밀러파 역사 속 개신교도들이 그 약탈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상응한다. 이 논쟁은 금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논쟁으로 인해 말라기 3장의 레위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윌리엄 밀러의 꿈에 나온 '먼지 빛자루를 든 사람'은 이제 그분이 진짜 보석들을 태양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나는 완전한 질서로 다시 모으시는 일을 앞두고, 방 안의 가짜 동전과 보석들을 쓸어내고 있다.

그 논쟁이 일어나도록 허용된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일깨우실 것이다;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다면,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키질하여 겨와 알곡을 가를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신다. 이때에 합당한 귀한 빛이 왔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짝 닥쳐 있는 위험들을 보여 주는 성경의 진리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입장들을 가장 철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의 모든 측면과 입장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철저하고 끈기 있게 탐구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는지에 대한 추측과 모호한 생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그분의 잠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허락하고 사용하시는 "이단들"은 "오래된 논쟁들"이다.

"역사와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미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오랜 논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예언을 믿고 성취함에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해 온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 그들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바위처럼 굳게 서서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 선택된 메시지, 제2권, 109쪽.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을 둘러싼 논쟁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유래한 오래된 논쟁이며, 그 역사야말로 그들이 "끝까지 굳건히" 붙들라고 권면받은 "그들의 확신의 시작"이다. 십사만 사천인의 "확신"의 "시초"는 1843년과 1850년 선구자 도표에 제시된 근본 진리들이다.

원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하는 일에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그의 꾀변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급한 때의 위험과 의무에서 빛나가게 하도록 꾸며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요한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그 빛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사건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과거 경험을 빼앗아, 대신 거짓 과학을 주입한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아무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뜯어내려 하지 말라—그 기초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계시를 통해 놓인 것이다. 지난 오십 년 동안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세워 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고, 이미 놓인 것보다 더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큰 기만이다. 이미 놓인 것 외에 다른 기초를 아무도 놓을 수 없다.

과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세우고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건물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가? 곧 무너졌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 제자들도 사람들의 주장과 맞서야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거짓된 이론들을 들어야 했고, 그 모든 일을 다 한 뒤에는 "이미 놓여 있는 터 외에는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굳게 서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세상에서 조목조목 불러내어, 현재의 진리의 분명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다. 거룩한 불로 그 입술이 만져진 채,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별을 선포해 왔다. 신성한 말씀은 선포된 진리의

참됨에 인을 쳤다. Review and Herald, 1904년 3월 3일.

예레미야의 '옛 길'은 '우리의 일이 시작될 때 놓인 기초'이다. 그 진리들은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 기초 진리들은 1842년, 1843년, 1844년에 선포된 '현재의 진리' 메시지였다.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시온의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 있는 자들은 백성에게 닥쳐올 위험을 볼 수 있고, 진리와 오류,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경고가 왔습니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온 이래 우리가 그 위에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게 세상 앞에 서 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빛을 구하던 그때 우리의 발이 놓였던 그 터전에서 발을 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합니다. 그 빛은 주어진 이후로 줄곧 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바퀴 위에 있고, 그분의 섭리로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 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서들에 자신을 묶어 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하늘의 주 하나님께 자신을 굳게 매어 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빛이 영혼의 성전에 비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4월 14일.

'1842년, 1843년, 1844년에' 선포된 기별은 1843년 개혁자 도표에 나타난 기별이다. 1842년 5월에 1843년 도표 300부가 인쇄되었다. 엘렌 화잇과 개혁자들은 모두 그 도표가 하박국 2장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명령의 성취였다고 증언했다. 바로 그 시기에 밀러주의 설교자들이 300명 있었고, SDA 역사학자들은 그들 모두가 1843년 도표를 사용했다고 증언한다.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로마를 "네 백성의 강도들"로 식별해 둔 선구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네 백성의 강도들"이라는 표현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선구자적 이해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이해를 스스로 변호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 글에서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인용했다:

인간의 지적 발전이 아무리 이루어지더라도, 더 큰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잠시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각자 개인적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한 줄기 빛이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지켜보아야 한다. 증언, 5권, 708쪽.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빛이란, 우리가 다니엘 11장의 처음 15절을 개인적으로 이해해야 할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고, 또한 같은 장의 13절부터 15절이 14만 4천 명의 최종적인 정결과 인침을 성취하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바로 이 역사 속에 이단 사상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논쟁이나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바른 교리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을 탐구해도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고,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게 만드는 의견 차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전통을 고수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일깨우실 것이다. 다른 방도가 실패하면,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신다. 이 때에 합당한 귀한 빛이 임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바로 닥친 위험들을 보여 준다. 이 빛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입장들을 가장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 진리의 모든 면모와 입장을 철저히 끈기 있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믿는 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는지에 대한 추측과 불명확한 관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시험의 때가 이르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에 관해 답하기 위해 공회 앞에 서게 될 때,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라, 또 제기하라, 거듭 제기하라.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주제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조항으로 여기는 교리를 옹호할 때에는, 완전히 타당하지 않은 논거를 결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언, 5권, 708쪽.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는 자들에 대한 이 고찰을 계속해 나가면서, 개신교도들과 밀러파 사이에서 다니엘서 11장 14절을 둘러싼 논쟁이 로마가 아니라 미국이 그 환상을 성취한다는 새롭고 사적인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동일함을 우리는 보여 줄 것이다. The Great Controversy가 "old world"라는 표현을 과거의 역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주장은 "가정이자 모호하게 정의된 생각"이며, "완전히 타당하지 않은 논증"의 한 예이다.

그 구절을 이용해 밀러주의자들이 로마를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 지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가정을 뒷받침해 온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공개적으로 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 주장은 문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논쟁을 관망하고 있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는 개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임을 알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신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 일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어 왜곡하여 자기들의 멸망을 자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악한 자들의 그릇됨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15-18.

베드로는 '무지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성경을 '곡해'하여 '자기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한다. 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라는 화이트 자매의 거듭된 경고이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목시를 세우는 자들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며, 솔로몬은 목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한다고 밝힌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29:18.

"perish"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이다. 이상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그것은 그 이상을 세우는 상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경고에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법령 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라오디게아인들로 상징된 벌거벗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구세계와 신세계에 대한 화잇 여사의 분명한 뜻을 왜곡하고, 또한 이상을 세우는 이는 로마라는 밀러주의자들의 규정을 거부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규정은 재림주의의 기초 진리들을 나타내는 1843년 도표에 직접 제시되었고, 그 기초 진리들은 모든 거룩한 기초의 묘사에서 드러나는 만세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의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인간의 사상과 의견, 사람이 고안한 형식과 의식,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관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기초로 삼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성품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다. 유혹의 맹렬한 폭풍이 그 모래 기초를 휩쓸어 버리고 그의 집을 세월의 해안에 폐허로 남겨 둘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 나는 심판을 측량줄로 삼고, 의를 다림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이 은신처를 넘쳐 흐르리라." 이사야 28:16, 17.

그러나 오늘도 자비는 죄인에게 간청하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에스겔 33:11.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그가 사랑하시는 도시를 바라보시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외치신 그분의 음성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얼마나 자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한 채로 버려지리라." 누가복음 13:34, 35, R.V.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상징을 보셨다. 오 완고한 마음아, 그분은 너를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의 눈물이 그 산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은 아직 회개하여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잠시 동안 하늘의 선물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 마음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너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계시록 3:20; 고린도후서 6:2.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러나 임박한 멸망을 피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견고한 기초로 피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로 한 돌을 두노니, 시험된 돌, 보배로운 모퉁잇돌,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땅끝의 모든 자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영원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당황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 28:16, R.V.; 45:22; 41:10; 45:17. 산상보훈, 150-152.

이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